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전략 : 사회부문

서재진* · 김창근**

◁ 目 次 ▷

- | | |
|--------------------|------------------|
| I. 서 론 | III. 북한의 사회통합 전략 |
| II. 북한체제에서의 사회적 도전 | IV. 결 론 |

I. 서 론

북한의 사회부문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모두 해체당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주, 자본가, 상공인 등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계급이 해체되었음은 물론이고 농민, 노동자, 인텔리 등 피지배계급에 속했던 사회세력도 거세되었다. 사회적 부문의 자율성도 최대한 억제되었다. 북한 사회는 전체주의, 집단주의의 모델에 따라 개조되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가 자율적인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지도 봉쇄되었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의 본질인 자주노선, 또는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원

우리식 사회주의의 구호 아래 외부와의 인적·문화적 교류나 접촉이 제한되었다. 북한 사회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에 놓여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회부문은 북한 정치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는 철폐되었지만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의 정책노선 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수는 역설적이게도 사회부문이다. 경제난, 대외적 고립, 남북관계 등 북한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적극적인 정책선택을 하지 못하고 과도기적인 위기관리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책변화가 북한의 사회 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사회를 전체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로 개조하고자 하였지만 그러한 정책목표가 완벽히 실현되기란 불가능하다. 북한의 사회 부문에는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부터 북한 지도부의 정책방향대로 개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변화 및 붕괴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부분도 많다. 북한의 일반주민은 물론 간부급 사람들도 동요하고 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대외고립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체제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난 수 년 동안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라는 미명 아래 계속해서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의 이러한 사상동요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가 정책선택에서 고심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남한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이 확인된 시점에서도 북한이 사회주의 이념을 변화시켜 체제효율성의 개선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남한의 자본주의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남한과의 체제경쟁의 조건에서는 인민들에게 충격적인 정보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 변수도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의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북한 지도부가 처해 있는 딜레마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체제가 처해 있는 위기, 특히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자본주의체제와의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전환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촉진시켜 체제유지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북한의 지도부는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는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도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지도부는 어떠한 사회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북한체제에서의 사회적 도전

1. 사회통합의 위기

가. 사회일탈 행위의 증가

북한에서 사회통합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일탈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회일탈 현상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국가재산에 대한 줌도독질 또는 절취행위이다. 이는 북한에서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급증한 사회일탈 현상의 하나이다. 자기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이처럼 국가재산 ‘훔쳐먹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월급과 배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의 증가는 공익에 대한 도덕적 타락을 증명한다. 동시에 억압의 결과와 전반적 결핍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서 나타난 간접적인 공격성 또는 국가의 파손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국가 재산에 대한 범행은 거의 대중현상이 되었다. 경제적 결핍상황의 결과, 결핍을 보상받기 위한 집단적인 말없는 공모라고 볼 수 있다. 줌도독질은 체제에 대한 항의행브이기

도 하다.

북한 주민들은 공장제품을 훔쳐먹는 일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물건을 훔치면 도둑이지만 국가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배급 대신에 나 스스로 가져가는 일이지 결코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알아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다.¹⁾ 또한 주민들은 간부들이 더 많이 훔쳐먹는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북한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제 국가로부터 생활비받기를 기대하지도 않으며 국가로부터 받은 월급을 돈으로 치지도 않는다고 한다. 모두 훔쳐먹거나 장사해서 살며 장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굶어죽을 지경이라는 것이다.²⁾

최근 북한에는 범죄가 매우 많아졌다고 한다. 기차 안에서의 도둑질이나 강도질이 많아졌다고 한다.³⁾ 범죄가 너무 많아서 밤길을 혼자 못다닌다고 한다. 「림격정」 영화에 나오는 쇠도리깨장수 유형의 강도가 많아 비슷한 유형의 강도를 만나면 쇠도리깨사건이 났다고 한다. 밤에 다니기가 무섭다고 증언하는 귀순자들도 상당수이다. 안전원, 군관들도 밤에 혼자 못다닐 정도라고 한다.⁴⁾ 귀순자들의 이러한 증언 내용에 대해 신뢰를 더해주는 근거가 김정일의 연설문에서 일부 나타난다.

사회주의적 생활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인민대중을 온갖 범죄와 사회악의 희생물로 만든 범죄행위이다. 사회주의적 생활질서가 파괴된 나라들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조성되고 각종 범죄와 사회악이 판을 치게 되었으며 온갖 사기협잡군과 범죄자들이 제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치게 되었다.⁵⁾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저항심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1) 「内外通信」週刊版, 第1019號(1996.8.22).

2) 최승찬(30세, 1996.7.11 귀순, 개성시 석비레 벽돌공장 자재인수원)의 증언.

3) 위의 증언.

4) 고준(30세, 1996.7.22 귀순, 평남 양덕군 지방자재공급소 자재인수원, 보위부 정보원), 김광일(39세, 1995.9.23 귀순, 함북 도농촌경리위원회 지도원)의 증언.

5)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 제3호(1993).

민들의 반발 때문에 1994년 경부터는 암시장 단속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암시장 단속에 대항하여 주민들이 시위를 하다시피 저항한다고 한다. 장사하는 물건을 뺏아가면 차 앞에 드러눕는 식의 행위로 완강히 저항하기 때문에 단속이 완화되었다고 한다.⁶⁾

간부들이 작업을 지시했는데 목표달성을 못하면 “하기 싫어서 못했나, 배고프고 자재가 없어서 못했지. 다른 공장에서는 월급받는데 왜 우리 공장 간부는 처신을 잘 못하여 은행에서 월급도 못타오느냐”는 등 자기 이익을 둘러싸고 문제제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⁷⁾

나. 소극적 체제저항의 증가

북한에서 불만의 표출은 물론 조심스럽다. 가족일, 식량문제, 직업문제 등 비정치적 문제에 한정하여 불만을 표출한다. 자칫 잘못하여 정치적 불만으로 오해를 받을 경우에는 엄청난 화를 당하기 때문에 대체로 비정치적이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⁸⁾

체제저항은 일부의 사람에게 한정되어 표출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른다. 따라서 많은 귀순자들은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빼라나 낙서와 같은 형태의 체제저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보위부에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빼라, 낙서 등의 소극적인 형태의 반체제 행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증언한다. 삼촌이 보위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차성근에 의하면 빼라나 낙서사건도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두 주일에 한 번 꼴로 일어난다고 들었다고 전한다.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이었던 현성일도 비슷한 증언을 한다. 그에 의하면 자신이 1993년 잠비아대사관으로 부임할 때 기차로 모스크바까지 가는 9일 동안 동행한 보위부원을 통해 많은 정보를 들었다고 한다. 보위부원은 현

6) 고준(30세, 1996.7.22 귀순, 평남 양덕군 지방자재공급소 자재인수원, 보위부 정보원)의 증언.

7) 오명선(33세, 1995.3.27 귀순, 신의주 일용품협동조합 자재인수원)의 증언.

8) 박성철(35세, 1995.9 귀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노동자)의 증언.

성일에게 북한에서 거의 매일 빠라, 투서, 대자보사건이 발생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렇게 빈발하는 사건들 때문에 보위부원들은 어느 한 밤도 편안히 자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위부원들이 이렇게 고달프게 일하고 있는 현실을 외교관들이 잘 알아주어야 한다고 현성일에게 요청했다고 한다.⁹⁾

보위부 통신관리수로 일했기 때문에 보위부원들로부터 정보를 전해듣곤 했다는 신명철에 의하면 자기도 빠라를 여러 번 보았다고 한다. 빠라의 내용은 김정일을 타도하라는 구호, 김정일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알리는 내용, 배고픈 우리의 설움은 김정일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내용이라고 한다. 또한 양강도 국경경비대 부소대장(상사)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1989년 평양축전이 끝나자 붙잡혔던 사실이 있었으며,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불만하고 북한 사회를 저주하던 단체가 1987년 10월 발각되어 14가구가 평북 삭주로 추방되었다고 한다.¹⁰⁾

소조활동 시절 통보자료에서 빠라 살포에 관한 내용을 읽었다는 사람도 있다. 김광일에 의하면 김일성대학 학생이 대안의 사업체제를 비판하는 편지를 김일성에게 올렸다는 내용과 13차 평양축전 때에 金父子 독재를 반대하는 빠라 살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¹¹⁾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가 변화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깨고 있다는 징후들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간혹 표출된다고 한다. 체제우월성을 늘어놓는 사상교양학습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 아새끼들 밤낮 (체제) 자랑만 하고 강냉이는 왜 못주나”라고 빈정대기도 한다. 농민들은 “농업위원회 새끼들 전기도 제대로 못주면서 뭐하고 있나”라며 불만을 표출한다고 한다.¹²⁾

북한에서 비공식적 차원의 체제비판 세력은 있을 수 있으나, 조직적 세력은 없다. 조직적 세력을 기도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기 때문이다.

9) 현성일(37세, 1996.1.30 귀순,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의 증언.

10) 신명철(37세, 1995.11.18 귀순, 보위부산하 황남 청단체신소 선로공)의 증언.

11) 김광일(39세, 1995.9.23 귀순, 함북 도농촌경리위원회 지도원)의 증언.

12) 최주환(46세, 1995.9.25 귀순, 인민무력부 용성무역회사 합영부장, 상좌)의 증언.

다. 간부-비간부의 갈등

북한의 사회조직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초해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핵심내용은 수령·당·대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 통일체라는 것이다. 수령·당·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함께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에서 간부와 비간부 사이에는 크게 균열이 생겼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불만투성이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내리누르기만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민들은 간부계급에 대하여 거의가 불만이다.¹³⁾

북한에도 이제 의식이 깎인 사람이 많다. 북한에서 ‘의식이 깎인 사람’이란 체제문제의 본질이 간부의 횡포와 부정부패에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무식한 사람은 미국놈이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의식이 깎인 사람의 경우에는 체제불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부의 문제라고 본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간부세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간부와 비간부간의 심한 불평등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간부 입만 입이고 우리 입은 입 아니냐, 간부 아니면 죽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한다. 간부와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생기는 불만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¹⁴⁾

북한 주민들은 백성들만이 굶어 죽을 처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당 간부 안전원 보위부원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백성들은 죽는다는 불만이다. 주민들은 국가가 간부, 안전원, 군인 등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만 식량 배급을 한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집안사람끼리는 죽는 놈은 노동자 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

13) 정갑렬(46세, 1996.5.31 귀순, 문화예술부 메아리음향사 음향연구소장), 박성철(35세, 1995.9 귀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노동자)의 증언.

14) 고준(30세, 1996.7.22 귀순, 평남 양덕군 지방자재공급소 자재인수원, 보위부 정보원)의 증언.

함남 청단군 출신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함남 청단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간부들은 필요한 물건을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구할 수 있으며, 무상이거나 국정가격으로 싸게 산다고 한다. 음식도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모두 간부들을 부정부패하여 뇌물을 많이 먹는 “악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¹⁵⁾

북한 주민들에게 간부는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간부들을 부정부패의 화신, 큰 놈은 크게 해먹고 작은 놈은 적게 해먹으며 뇌물 없이는 아무 일도 안해주는 부류로 인식하고 있다. 당의 노선이나 사상과는 달리 북한에서 간부들은 자기욕심 채우는데만 급급한 부류로 인식되고 있다. 고위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심하여 인민들의 생활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간부들은 팬티까지 외제를 입으면서 인민들은 죽으라는 것이냐, 아니면 살라는 것이냐”라며 주민들은 불평한다.¹⁶⁾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간부에 대한 적대감이나 울분이 많다. 김일성·김정일에게는 욕하지 않더라도 간부들에게는 노골적으로 욕한다고 한다. 당 간부, 안전부, 보위부원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북한에서 간부층은 주민들의 원한의 대상이 된다. 높은 간부보다 중간간부들에 대한 적대감이 더 많다.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간부층 욕하는 모습이 일상적이라고 한다. 온갖 쌍스런 욕을 다한다고 한다. 주된 내용은 “앉아서 놀고 먹는 것들, 인민들 피나 빨아먹는 놈들, 뭐하나 해결하자고 해도 뇌물, 뭐하나 승낙받자고 해도 뇌물” 등이라고 한다.¹⁷⁾

북한 귀순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증언의 하나는 전쟁이 나면 군관과 안전원, 간부부터 쏘죽이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안전원에 대한 원한이 크다. 북한의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원에게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원들은 이들을 잡아 엮포놓고 뜯어 먹는

15) 신명철(37세, 1995.11.18 귀순, 보위부산하 황남 청단체신소 선로공)의 증언.

16) 차성근(29세, 1996.1.16 귀순, 잠비아주재 북한공작원), 진광호(29세, 1994.6.16 귀순, 인민무력부보위대학 온천수산기지 운전사), 차성근(29세, 1996.1.16 귀순,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공작원), 정갑렬(46세, 1996.5.31 귀순, 문화예술부 메아리음향사 음향연구소장)의 증언.

17) 김영국(22세, 1996.2.25 귀순, 평북 철산군 자동차운전학교 학생, 장사)의 증언.

다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안전원부터 쏘죽이겠다고 버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전쟁만 나면 두고보자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¹⁸⁾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북한의 간부들은 전쟁이 나면 총구가 내부로 향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귀순자들은 북한에서 민중 봉기가 나면 바로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당간부, 안전원, 보위부원의 집을 먼저 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⁹⁾

일상생활에서도 간부들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시당간부들에게 대들고 싸운다고 한다. 구타만 안하면 말로 싸우는 일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극장에서 노동자들이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달겨들 정도로 간부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는 것이다.²⁰⁾

주민들은 보위부, 안전부 사람들의 “똥집이 둘”이라고 비꼰다고 한다. 별종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부원을 깐대기, 또는 태관이라고 비꼬아 부른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요새」라는 영화에서 일본 순사에 고자질하는 정보원의 이름이 태관이었는데 그 영화가 나온 이후로 세포비서 등 당간부를 태관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²¹⁾

군당간부, 안전부 요원 중에서 몰래 맞아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원한 가진 사람은 밤에 숨어 있다가 간부들을 죽이기도 한다고 한다. 야간에 안전부 요원에 대한 「림격정」식의 도리깨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양덕군 분주소 소장이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공병국 군인 세명에게 팬티만 남고 발가벗겨진 일도 있었다고 한다.²²⁾

18) 정갑렬(46세, 1996.5.31 귀순, 문화예술부 메아리음향사 음향연구소장), 진광호(29세, 1994.6.16 귀순, 인민무력부보위대학 온천수산기지 운전사), 이해영(34세, 1996.3.18 귀순, 시베리아 석탄연합7기업소 노동자), 최승찬(30세, 1996.7.11 귀순, 개성시 석비레 벽돌공장 자재인수원), 신명철(37세, 1995.11.18 귀순, 보위부산하 황남청단체신소 선로공)의 증언.

19) 최세웅(34세, 1995.12.12 귀순, 북한 대성총국 유럽지사 외환딜러)의 증언.

20) 차성근(29세, 1996.1.16 귀순, 잠비아주재 북한공작원)의 증언.

21) 이철수(41세, 1994.7 귀순, 객화차대 물자조달원), 고준(30세, 1996.7.22 귀순, 평남 양덕군 지방자재공급소 자재인수원, 보위부 정보원), 최동철(30세, 1995.12.12 귀순, 415담배농장 노동자)의 증언.

22) 최승찬(30세, 1996.7.11 귀순, 개성시 석비레 벽돌공장 자재인수원)의 증언.

주목할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간부와 비간부의 관계를 조선시대의 양반-상놈의 구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사람들은 요즘 양반과 상놈,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표현을 많이 쓴다.²³⁾ 북한 주민들은 “양반, 상놈 차이가 너무 심하다, 우리 상놈들…, 우리 천민들…”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한다. “네놈들은 양반이고 우리는 상놈이다, 네놈들은 태관이 아니냐”라며 적대시한다고 한다.²⁴⁾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은 신분사회(status group society)이다. 북한에서 “제비는 제비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논다”는 속담이 유행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²⁵⁾

라. 김정일에 대한 비판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에 대한 지지는 절대적이었는데 비하여 김정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교의 관점이야말로 북한 지도자의 ‘절대성’을 초월하는 관점의 첫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제 때문에 외부와 직접비교가 어려워도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시대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교의 준거를 가지게 되는 경험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상화교육을 비판하고 현실적인 사유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정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되며, 경제적 어려움의 근원이 김정일의 통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1970년대 초에는 잘 살았는데 김정일이 등장한 7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인식하며, 그것은 “철없는 아이가 정치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23) 윤성철(36세, 1996.3.18 귀순, 원산시 양정사업소 소방대 대원)의 증언.

24) 정갑렬(46세, 1996.5.31 귀순, 문화예술부 메아리음향사 음향연구소장), 최동철(30세, 1995.12.12 귀순, 415담배농장 노동자)의 증언.

25) 이진국(30세, 1996.5.8 귀순, 외화별이 사업소 과장)의 증언.

김일성 시대에 비하여 김정일 시대에는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이다. 북한의 주민들은 비교적 살기가 넉넉했던 1970년대를 향수에 젖어 회고한다고 한다.

김정일은 1973년에 후계자로 등장한 뒤부터 평양시 건설과 대규모 상징적인 혁명전적비, 1980년대 초에 준공된 「인민대학습당」, 「주체사상탑」, 「개신문」 등 20여 개가 넘는 이른바 「대기념비적 건조물」을 비롯하여 41층짜리 아파트 건립, 「김일성경기장」(「모란봉」경기장을 5만명에서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105층짜리 류경호텔 건립 등을 추진해 왔다. 이는 결국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비경제적·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상품 생산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건설추진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에 대한 비판여론은 경제적 실정에서 비롯되어 점차 그의 지도자적 자질, 우상화정책 반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귀순자들과 방북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관찰해 볼 때 인민대중뿐만 아니라 북한의 간부급을 포함한 인텔리들도 김정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권력엘리트 사이에 김정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순자들에 의하여 많은 사례가 증언되고 있지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북한 지도부의 언동에서 시사되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 북한방송은²⁶⁾ 「우리 당은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대를 이어 꽃피워 나가는 위대한 당」 제하의 논설을 통해 “김정일 동지는 당의 통일 단결 대오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대오의 단합을 저해하는 사소한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도 스쳐 보내지 않고 그를 반대해서 원칙적으로 투쟁하도록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당내에 ‘부정적 현상’에 대한 투쟁이 있었음을 표출한 것은 북한 권력층 내부에 비판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

26) 「조선중앙방송」, 1990.9.25.

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 취임 이후 군 내부에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취임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여러 사람의 귀순자들이 증언을 했지만 여기서는 김정일의 공식 연설문에 나타난 흔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적대분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첨예한 투쟁을 동반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인 책동이 계속되고 내부에 그와 연결된 불순분자들이 존재하는 조건속에서 사회주의 정권은 언제나 혁명의 무기로서 반혁명적 반사회주의적 요소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과 내부의 반동들이 혁명과 건설을 방해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려고 책동하는 것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합니다.²⁷⁾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에 취임하고 난 직후에 발표된 이 글이 시사하고 있는 점은 북한에서 불순분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제 때에 분쇄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연설문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데는 매우 조심스럽다. 까닭은 철저한 사회통제와 가혹한 처벌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 중에는 김정일이 매우 무섭고 혹독하다거나 하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할 때도 “지도자 동지가 성격이 무서우신 것 같애, 지도자 동지 앞에서 간부들도 한번 잘못하면 모가지 떨어진대” 등의 완곡한 표현을 쓴다고 한다.²⁸⁾

체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면서도 남보다 앞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투쟁을 주도할 사람은 없으며, 국가의 문제점 개선보다는 내 개인의 목숨이 더 귀하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육체

27)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 「로동신문」, 1992.2.4.

28) 윤웅(32세, 1993.10.11 귀순, 청진광산금속대학 졸업)의 증언.

적 삶은 짧지만 영생하는 정치적 삶으로 살자”는 당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빗대어서 “죽은 양반 산 개보다 못하다”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한다. 아무리 충성해서 명예가 길이길이 빛난다고 해도 살아있는 생애를 즐기겠다는 풍조가 휩쓸고 있다는 것이다.²⁹⁾ 이러한 태도는 엄격한 감시체제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 등짝도 못믿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고 한다. 또한 방에 혼자 앉아서도 김정일에 대한 욕을 못할 정도로 심한 감시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 부모들이 자주 자식들에게 타이르는 말의 하나는 밖에 나가서 말조심하라는 당부라고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³⁰⁾

마. 탈북자 증가

북한의 사회통합에 문제가 있다는 또 하나의 징후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으로 귀순하는 사람들의 수가 1990년대에 들어서 17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960년대의 65명, 1970년대의 15명, 1980년대의 49명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숫자이다. 특히 최근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현승일 일행의 귀순, 평양주재 러시아무력대표부를 통한 공안요원의 망명시도 등은 북한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증가하는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내부에서 ‘밀어내는’ 요인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자 주민들이 암시장 거래, 직장 자산이나 생산품의 횡령, 뇌물, 밀수 등 닥치는 대로 일탈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리에 연루되어 당국에 쫓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탈북자 증가의 원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비

29) 박수현(32세, 1993.10.11 귀순, 경성전기공장 노동자)의 증언.

30) 고청송(1993.6 귀순, 혁명사적지 보호사업소 지도원), 어승일(1988.3.31 귀순)의 증언.

리 때문이라고 일축하는 학자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개인적 비리를 증가시키는 사회적 요인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중국 및 러시아의 개방화와 더불어 북한의 외부에서 탈북자를 유인해내는 요인을 들 수 있다. 중국 및 러시아가 개혁·개방 이후 개인행동이 자유로워지자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왔다가 현지에 눌러앉거나 남한의 사정을 알게 되어 남한으로 귀순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수교 이후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설치된 한국대사관은 탈북자들의 망명신청소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현지의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망명이 성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상황을 잘 모르는 탈북자들을 유인하기에는 충분한 상황변화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탈북사태는 북한 당국의 국경수비강화 등의 대응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사회통합의 저해요인

가. 경제난

북한의 사회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제난이다. 1980년대 후반, 특히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 경제가 급속히 침체하면서 식량과 생필품 공급의 양과 질이 급속히 떨어지자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생필품 확보를 국가로부터 기대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된 것 같다. 수령과 당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 해외생활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아 외부정보를 접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의 위기적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개인주의적 경제행위, 일탈행위의 증가이다. 암시장 및 지하경제의 발달, 화폐에 대한 가치 변화, 개인소유주의, 그리고 뇌물의 성행, 국가재산의 횡령, 절취의 일상화 등 의식변화와 일탈행위가 확산된 것이다.

암시장을 통하여 생필품을 구입하고 동시에 이득을 올리는 직접적인 삶

의 경험을 통하여 돈에 대한 가치의식이 달라졌다. 암시장이 발달되기 전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돈의 효용가치가 없었다. 이제는 돈으로 입당이나 대학입학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만큼 돈의 위력이 강해졌다. 암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유통구조에도 자본주의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공장가동률이 낮아지자 생산품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생산품의 상당 부분이 암시장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국가가 배급할 생산품이 더욱 부족해지고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암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점은 단순히 경제상황의 문제이다. 그러나 식량과 생필품을 조달하는 방식이 이렇게 암시장화하는 것은 이미 체제변화의 문제이다.

나. 외부정보의 유입

북한의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동인은 외부에서도 왔다. 외부로부터 자본주의 및 자유주의의 바람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합영법」의 도입이 제한적이거나 북한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엔화 및 달러화의 유입과 통용으로 화폐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외화획득을 위해 추진한 외국관광객 유치, 해외동포 방문, 시베리아 벌목공 파견 등 일련의 부분적 개방들이 북한 내에 외부의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에 따라 동구 및 소련에서 유학생들이 소환되었는데 이들이 서방 및 동구의 정보를 유입시켰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은 북한 사회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친척방문, 보따리 장사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자본주의가 북한에 전파되었다. 북한에 장사하기 위해 방문하는 조선족 동포는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실상이 북한에 전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 사회 변화에 분수령이 된 해는 1989년이라고 볼 수 있다. 1989년은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며, 중국에서 천

안문사태가 일어난 해이다. 바로 전 해에 서울올림픽이 열렸으며, 2년 후인 1991년에 소련체제가 붕괴하였다. 북한체제가 외부정보로부터 상당히 차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만은 없다.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북한의 지도부와 인민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북한에서 1989년은 평양축전이 개최되었던 해이기도 하다.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이 행사가 외국인, 외국상품, 외국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정권에 대한 심리적 이반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평양축전 동안 북한에는 160여 개 국가 및 단체에서 1만 4천여 명의 외국인이 일시에 찾아왔다고 한다. 세계곳곳에서 온 이들 손님들의 의복이나 휴대품, 자유분방한 행동, 심지어는 천안문사태를 규탄하는 공산국가로부터 온 손님들을 목격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외부세계와 북한세계를 비교하는 큰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前 평양주재 소련 외교관인 다비도프(Oleg Davydov)에 의하면 북한에서 ‘심리적 이반’이 확산된 전환점은 1989년 개최된 평양 청년학생축제였다고 한다.

북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관심을 쏟지 않았으나, 이 행사는 북한주민들의 사회 심리적 변화를 초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주민들에게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이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계획되었던 이 행사는 실제로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물자를 절약하고 노동동원을 하고 식량배급을 줄이는 등 전 주민이 장기간 극도로 긴장하여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민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반 주민들은 그들이 초대받지 않은 향연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속았다고 느꼈다. 더욱이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이 행사가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되었고 강요적 선전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 무언가를 배웠다. 그리고 가게 진열장은 평소에 북한주민이 볼 수 없었던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창구였다. 그것을 통해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말하는 북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선전이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형식적인 충성심은 남아 있지만 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태에 불과하며 안으로 실제로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³¹⁾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 미국과의 연락사무소 개설 등 앞으로의 상황 변화는 북한 사회에 외부정보 유입을 촉진시킬 것이다.

다. 계급정책과 적대세력의 양산

북한 사회에서 정치적 불만의 분위기를 확산시킨 것은 외부의 바람, 경제난 등의 요인 외에도 계급노선에 입각한 사회통제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계급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북한의 사회통제정책은 출신성분에 따라서 핵심군중, 동요군중, 복잡군중으로 분류하고 동요군중과 복잡군중에 대하여 입당, 입학, 취직 등 주요 사회적 선발과정에서 차별대우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복잡군중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그 체제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의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경제침체 등 정책실패에 대하여 사회적 불만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사회통합문제에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계급정책을 완화할 수도 없고, 강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계급출신별 성분분류정책은 북한 사회에서 사회통합에 가장 큰 해악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 지점에서 이 정책을 폐기하기도 어려우며 강화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북한체제에서 체제모순과 사회불만을 야기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인텔리 계급에 대한 정책실패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체제붕괴를 당하게 된 요인의 하나는 기능적으로 필수적인 인텔리계급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활용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

31) 올레그 다비도프,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대외정책,” 民族統一研究院 編, 「北韓體制의 變化 : 現況과 展望」 (서울 : 民族統一研究院, 1991), pp. 506~507.

을 것이다. 인텔리계급의 문제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딜레마였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딜레마 때문에 체제가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텔리계급에 대한 정책오류 때문에 체제효율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만세력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북한도 똑같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III. 북한의 사회통합 전략

사회통합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측면 외에도 북한 지도부가 개혁·개방을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사회통합문제를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는지 살펴본다.

1. 감시와 처벌의 강화

북한은 무엇보다도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귀순자들은 김일성 사망 이후 법이 세어지고, 총살도 많아지고, 배급이 안되고,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학습 등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불만을 표출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한 해가 다르게 잡혀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일반 노동자의 60~70%는 교화소³²⁾에 한 번 켜진 사람들이라고 한다.³³⁾

이는 1980년대 후반들어 주민통제에 질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차성근에 의하면 세상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

32) 사회안전부 산하 통제 및 처벌방법은 감옥, 교화소(관리소), 강제노동(혁명화), 무보수 등의 순으로 구분된다.

33) 고준(30세, 1996.7.22 귀순, 평남 양덕군 지방자재공급소 자재인수원, 보위부 정보원)의 증언.

우가 많다고 한다. 김정일이 더 조이라고 지시한 이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할 정도이며, 보위부원들도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겠냐고 황당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위부원들은 “우리는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이니 체제무너지면 우리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다한다고 한다. 대체로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한다. 높은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걸려도 살아남는데 애매한 사람만 당한다는 것이다.³⁴⁾

북한은 사회질서의 문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격적 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군중들을 모아놓고 즉결처형을 하는 사례가 많다. 개성의 경우만 해도 1995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에 15명이 공개총살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소 잡아먹은 사람 3인, 양정(쌀도둑)으로 사리사욕 채운 3인, 장마당에서 술 뺏어먹은 사람 3인 등 비사회주의 짓하다가 걸린 사람들이라고 한다.³⁵⁾

평양에서는 중구역 등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작년 한 해 동안 4~5차례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작년 7월 대동강구역 건설건재대학 뒤편에서 주민 수 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인 및 강도 혐의로 20대의 처녀와 부부 등 3명이 공개총살되었다고 한다.³⁶⁾

거의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원인은 독재강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감시체제가 거물망처럼 매우 촘촘하다고 한다. 안전부, 보위부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자기 등도 낯이나 마찬가지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생각하여 언행에 매우 조심한다고 한다. 직장동료 속에서도 감시자가 있어 말이나 행동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통제된다고 한다. 행동수상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감히 사회제도가 나쁘다는 말을 못한다고 한다.

3명 이상 앉아서 술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말조심을 많이 한다고

34) 차성근(29세, 1996.1.16 귀순, 잠비아주재 북한공작원)의 증언.

35) 최승찬(30세, 1996.7.11 귀순, 개성시 석미레 벽돌공장 자재인수원)의 증언.

36) 장해성(51세, 1996.5.31 귀순, 북한 중앙방송위원회 소속 작가)의 증언.

한다. “짧은 혀 때문에 긴 모가지 달아나게 하지 말라”고 서로 경고한다는 것이다. 친구끼리 모여 놀 때도 말조심을 해야한다고 한다. 남이 정치적 발언하면 나를 떠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대개는 동조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처는 남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는 귀순자도 많다. 부부싸움 일어나면 과거의 발언을 문제삼아 보위부에 신고하기 때문에 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³⁷⁾

그러나 엄한 통제의 결과 민심이 나빠지기 때문에 부분적인 유화책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2년부터 말반동은 잡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³⁸⁾

공개총살을 하는 등 엄한 통제를 하지만 완전무결한 통제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이동을 제한했으나 비법적 이동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통제는 옛보다 강화되었으나 융화는 더 용이하다고 한다. 눈감아 주는 것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다고 한다. 증명서 없이 쌀 구하러 여행하는 것도 용인하여 준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것은 융화되지만, 정치적인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³⁹⁾

탈북자 억제대책 : 최근 주민들의 탈북이 잇따르자 북한은 탈북자 방지 및 체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탈북조짐이 보이는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색출하고, 탈출한 주민들을 체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탈북자문제를 사회체제의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북한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과급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북한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경탈출방지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탈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⁴⁰⁾ 1차 감

37) 정갑렬(46세, 1996.5.31 귀순, 문화예술부 메아리음향사 음향연구소장), 최승찬(30세, 1996.7.11 귀순, 개성시 석비레 벽돌공장 자재인수원), 이해영(34세, 1996.3.18 귀순, 시베리아 석탄연합7기업소 노동자)의 증언.

38) 최세웅(34세, 1995.12.12 귀순, 북한 대성중국 유럽지사 외환딜러)의 증언.

39) 신명철(37세, 1995.11.18 귀순, 보위부산하 황남 청단체신소 선로공), 오명선(33세, 1995.3.27 귀순, 신의주 일용품협동조합 자재인수원)의 증언.

40) 「內外通信」週刊版, 第1015號(1996.7.25)

시대상자는 가재도구판매자라고 한다. 생활에 필수적인 자재도구를 판매한다는 것을 북한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탈출을 시도하려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감시대상자는 함경북도나 양강도 등지에 사는 밀거래자 및 전과자들이다. 이들은 중국과 접해 있어 개방사회에 대한 물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하루에도 10여 명 이상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국경지대에 대한 경비와 검문검색 강화는 경비초소 증가, 탐지장비 추가 지급, 경비병력 수의 대폭 증강, 경비부대 증편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0군단」 창설과 「체포조」 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북한은 탈북자의 밀무역을 막기 위해 중국쪽 국경경비를 전담하는 「10군단」을 창설하여 압록강 일대에 전진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중국에 「체포조」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탈북자가 많은 연변에서 중국내 조선교포들인 조교(朝僑)조직을 이용하거나 조선족에 최고 3천위안(약 3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탈북자 적발에 나선 적은 있으나 직접 탈북자 체포조를 구성한 일은 처음이라고 알려지고 있다.⁴¹⁾

북한이 탈북자문제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는 김정일의 지시에서도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최근 탈북자가 발생하면 해당지역의 군당 책임비서·안전부장(경찰서장)·보위부장을 연대처벌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⁴²⁾ 이에 따라 공장·기업소에 결근자가 발생하여 사회안전부에 통보가 되면 안전부원·보위부원·당비서가 직접 집에 찾아가 확인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경호 일가족 17명이 야간에 두만강을 넘어 탈북한 점과 사회안전부 요원이 이들을 도와주고 함께 탈북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41) 「内外通信」週刊版, 第1021號(1996.9.5).

42) 「内外通信」週刊版, 第1029號(1996.10.31).

2. 간부들에 대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단속

인민대중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에 병행하여 간부들의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의 불평등과 간부들의 부정부패, 세도, 관료주의가 만연하는 현상에 대하여 “사회주의 사회에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 일정한 역사적 기간 남아 있는 것은 과도적 현상”⁴³⁾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척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은 간부들을 통하여 집행되는 것만큼 당과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하여도 간부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 그것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간부들이 득세를 부리고 관료행세를 하며 부정부패를 일삼으면 사회주의 집권당은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되며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 역사적 교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집권당이 간부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것은 스스로 제무덤을 파는 것이나 같다.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간부들의 관료주의, 세도, 부정부패는 어제오늘에 지적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공식담화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것은 북한당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3. 계급노선으로부터 군중노선으로의 이행 선언

북한은 일반주민들을 계급적 출신성분에 따라 분류하여 차별적으로 통치하는 정책들이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43)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1.

있다. 따라서 북한은 좌경적 과오, 즉 계급정책이 수반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하여 군중노선과의 균형을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 사후 “사회주의 내부에서 생긴 배신자의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과거의 계급노선에 기초한 사회통합정책 대신에 군중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계급적 차이 없이 누구든지 현재의 사상의식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포용하겠다는 인덕정치 또는 광폭정치,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의 무기로 간주되었던 당을 대중적 당으로 전환하는 대중적 당건설론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가. 인덕정치 및 광폭정치

사회통합의 전략으로서 계급노선에서 군중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정호는 인덕정치 및 광폭정치의 개념이다. 인덕정치 및 광폭정치는 또한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리더쉽의 특징을 새롭게 부각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념이기도 하다. 인덕정치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시기는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소련이 붕괴한 이후인 1993년 1월 28일자 「로동신문」에서 “인덕정치가 실시되는 사회주의 만세”라는 기사에서부터였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4년 8월 27일 「김정일 노작 발표 20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행한 계응태의 보고문에서이다. 보고문에서 북한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1980년대에 당의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새롭게 취하신 혁명적 조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 세우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인덕정치 및 광폭정치의 본질은 지금까지의 계급노선에 기초한 출신성분별 차별정책을 폐지한다는 데 있다. 마치 노예문서를 불사르는 것과 같은 의미로까지 비유하면서 계급노선의 폐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출신성분이나 과거경력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의 사상을 기본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당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가정주위 환경이나 사회정치생활경위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계신다. 이 절대적인 믿음과 포용력이 있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민생단〉 문서 보따리를 불사른 것과 같으며 해방후 토지개혁을 한 것에 못지 않는 로동당 시대의 위대한 인간사랑의 서사시도 엮어질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고 참된 삶의 길로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다.⁴⁴⁾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적대계급의 과오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적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여 포용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복잡한 군중이라고 할 때에는 가정주위 환경이나 지난날의 사회정치 생활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 복잡한 군중의 대부분은 기본 계급 출신으로서 지난날 계급의식이 낮았던 탓으로 적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용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동지이며,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까지 같이 가야할 혁명 동지들입니다.⁴⁵⁾

이러한 내용만으로 볼 때는 북한이 계급적 노선을 폐기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일부의 복잡군중을 포용하여 입당시키고 직위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숫자에서 사례를 만든 것으로 광범위하게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인덕정치를 매우 숭고한 이론적 체계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에는 별 차이가 없다. 주민들은 여전히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계급적 처지와 토대는 참고로 하고 본인의 사상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사회주의 위업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당대렬

44) 「로동신문」, 1995.1.15, 2면.

45) “김정일 혁명력사강좌,” 「평양방송」, 1994.11.5.

을 꾸린다”⁴⁶⁾라는 말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정치적 성향에 대하여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나. 당의 개념변화 : 계급적 전위당에서 대중적 당으로

북한은 사회통합의 전략으로서 인덕정치 및 광폭정치라는 개념을 부각하는 외에 당의 개념을 과거의 노동계급 전위당에서 인민대중의 대중적 당으로 이미지를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다. 북한에서 노동당은 분명히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전위당의 성격을 갖는다. 레닌의 전위당 이론에 의하면 인민대중은 스스로를 노동계급으로 의식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위당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⁴⁷⁾

이러한 전위당으로서의 당의 개념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당을 주로 계급투쟁의 무기로 보았습니다”⁴⁸⁾라는 김정일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당의 역할은 계급노선의 전위대로서 계급노선을 추진하는 인민에 대한 감시기구, 통제기구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현재의 역사적 조건, 시대적 상황은 노동계급의 당에서 전체 인민의 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당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계급적 정치조직으로, 계급투쟁의 무기로 보아왔다. 당은 일정한 계급(노동계급)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전위당)이지만 당을 일정한 계급만을 위한 당으로 건설하여서는 혁명적 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역사적 조건은 노동계급의 당

46)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 조선로동당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로동신문」, 1992.10.10.

47) 레닌의 전위당 이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397~398 참조할 것.

48) “김정일 혁명력사강좌 164회,” 「평양방송」, 1995.1.17.

을 전체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근로하는 모든 계층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대중적 당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⁹⁾

북한은 당의 개념을 대중적 당으로 부각하는 내용을 연일 언론매체를 통하여 선전하고 있다. 주요 문건 하나를 예로 들면 1992년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에 김정일의 명의로 발표된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에서는 당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노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당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당을 인민대중의 이익의 대표자로서 대중속에 뿌리박는 것은 그 존재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대중의 지지를 떠나서는 노동계급의 당의 자기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⁵⁰⁾

이러한 대중적 당으로의 이미지 변화는 체제의 위기 속에서 현실의 문제와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언어적 유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정책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는 더 자세히 현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이 경험하는 현실과 정치이데올로기의 간극이 커질수록 북한 주민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북한체제가 현재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적인 동원을 강화하면 할수록 북한 지도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4. 이데올로기 교육 강화 :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저항적 태도에 대하여 북한당국은 이데올로기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어떠한 내용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자.

49)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50) 위의 글.

북한은 사회주의 기초이론을 동원하여 사회주의가 본래는 좋은 제도라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과도기적인 일탈적 현상에 불과하며 제도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귀순자들의 대부분이 북한의 현재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도 “제도는 좋은데”라는 여운을 남기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사상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북한이 아주 좋으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⁵¹⁾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가 착취와 압박, 사회적 불평등과 그 기초에 놓여있는 사적 소유를 없애고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평등한 사회를 세웠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만이 “사람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한 가장 진보적인 사상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고 본다.⁵²⁾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은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간부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기 보다는 북한 사회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라고 규정하고 그 속에서 일심단결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되고 사람들이 친혈육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정신도덕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입니다.⁵³⁾

또한 북한은 북한 사회를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규정하고 계급적 대립을 지양하여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가 서면 계급적 대립이 청산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대립과 불신의 관계로부터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전환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51) 차성근(29세, 1996.1.16 귀순, 잠비아주재 북한공작원)의 증언.

52)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왜방은 허용될 수 없다.”

53)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로동신문」, 1995.12.25.

는 사랑과 믿음이 사회적 집단과 그 성원들 사이, 사회의 개별적 성원들 사이에 꽃피어나며 그것은 수령과 전사들 사이에서 가장 숭고하게 발현된다.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이 사랑과 믿음으로 결합되고 온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전환되어 모든 사회 성원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어 내가는 삶이 가장 값높고 아름다운 삶이며 그것을 실현한 사회가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사회로 된다.⁵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주로 육체적 생명을 주고받는 혈육의 관계라면 혁명가들 사이의 관계는 혁명의 한길에서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내가는 혁명동지들 사이의 관계입니다.⁵⁵⁾

집단과 조직을 이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원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부모형제를 사랑하듯이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부모형제들을 사랑하고 동지들을 사랑하며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집단과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관리하며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데 이르기까지 사회관계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산주의적 도덕규범을 잘 지켜 나가도록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⁵⁶⁾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의 사상교육의 전형적 방법에 속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내용을 들추어내어 비판하기 보다는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여 따라배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사회갈등의 정도가 미약할 경우는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에 이러한 방법이 사회

54)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55)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56) 위의 글.

갈등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체제는 사회통합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 일탈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형태이나마 체제저항 행위도 표출되고 있다. 특히 간부에 대한 인민대중들의 적대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이다. 사회통합 위기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경제난, 외부정보 유입의 증가, 과거의 청산된 계급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계급 투쟁의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핵심적인 축은 간부와 일반대중 간의 갈등이다. 북한 사회에서 일반주민들의 불만이 주로 간부층 특히 중간간부에 대한 적대감의 차원으로 표출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문제의 본질이 간부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사회주의 관료체제, 경제체제 자체에 있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최고지도부에 있다는 인식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민들은 오히려 사회주의 제도나 사상은 좋은데 중간간부들의 이기주의, 부정부패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최고지도자는 옳게 지도하는데 중간간부들이 그 지침을 잘 집행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시해야 될 부분은 북한 주민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을 중간간부의 탓으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체제에서 간부와 인민대중간의 이반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의 통합에 대단히 파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히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간부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

식은 사회갈등에 격렬성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사회적 갈등은 향후에도 북한정권의 정책방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임에 틀림없다. 북한 지도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가질수록 기존의 폐쇄주의와 사상통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책선택의 유연성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며, 그것은 북한체제를 더욱 경직되게 할 것이다.